

제56회 호남예술제 심사평

마음 울리는 표현력 감동

성악 초등부

기술적인 면이나 음악적인 면에서 예년에 비해 기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 뿌듯했다. 어린이들 만의, 마음을 울리는 표현력과 음성을 가진 학생들은 감동을 줬다.

동요다운 노래를 선택해 자신의 음색을 살릴 수 있는 음높이로 노래를 부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들이마신 숨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좀 더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큰 소리를 내기 위해 무조건 소리를 내지르듯 부르거나 목을 너무 눌러서 부르는 바람에 가사 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아쉬웠다. 발음할 때 너무 입을 크게 벌리는 것도 좋지 못한 자세며 곡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는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하다.

〈김영지·이은철·조규철·조수현·홍승연〉

감성·표현력 어우러져야

성악 중·고등부

리듬, 박자, 발음, 호흡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여기에 감성과 표현력을 가미하면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다.

중등부의 경우 목소리가 변하는 과정에 있는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좀 더 자신있는 목소리로 무대에 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대 관리에 유의하고 변성기 중에는 노래를 쉬어주는 게 좋다.

고등부의 경우 발성과 디션이 안정적이고 표현력이 좋은 참가자들이 많아 의미가 있었다. 성악을 전공하려면 소리 위주로 공부하지 말고 호흡연습과 음정을 정확히 해야 한다.

피아노 반주 대신 mp3나 오디오 소리를 듣고 연습하는 경우가 많아 음정에서 불안함을 보였다. 반주자와 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할 듯하다.

〈김숙자·강영은·김철용·박미애·박형하〉

페달 사용법 잘 익혀야

피아노 초등부

전체적으로 참가자들의 수준이 무난한 가운데 특히 3·4학년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다. 음악적으로 템포 설정을 잘해야하며 팔꿈치를 불필요하게 흔들어서 바른 연주에 지장을 주는 학생들은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한다.

또 악상 표시나 음악표현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연주해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포르테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때릴 게 아니라 음악 분위기에 맞는 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페달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깊이와 타이밍을 조절하는 등 페달 사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익혀두는 게 필요하다.

또 박자, 리듬이 정확하지 않아 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꼭 개선해야 할 점이다.

〈김영신·문현옥·서영화·조성경·허정화〉

곡 해석, 좀 더 신중하게

피아노 중·고등부

중등부는 작곡가별로 곡 해석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연주할 때 릴렉스가 되지 못해 멜로디 라인이 끊기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무리하게 빠른 템포로 연주해 리듬이 부정확하고 음악이 흔들리면서 불안한 모습을 볼 수도 있었다. 정확한 리듬을 표현하는 연습과 자연스럽게 편안한 음악적 해석이 필요하다.

고등부는 중등부에 비해 준비가 미흡하고 수준이 낮았다. 페달링을 주의해야 한다. 페달링이 안 좋다는 것은 자신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으로 화성의 변화를 들어가며 페달을 깨끗이 밟도록 해야 한다. 또 다이내믹 등 음악을 표현하는 요소들을 악보대로 충실하게 연주해야 한다.

〈김신영·김혜경·박효정·신수경·조성경〉

수준에 맞는 곡 선정을

현악

너무 어려운 곡은 지양해야 하며, 수준에 맞는 곡 선정으로 무대를 즐기고, 자신 있게 연주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기량으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곡을 선정해 연주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음악적 느낌 표현에 좀 더 주력하고, 생명력이 있는 음악의 연출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음정 연습이 필수 요소고, 악기의 울림을 스스로 느끼며 표현을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초등부 5·6학년 바이올린 부문을 비롯해 첼로 부문과 중등부 1·2학년 비올라 부문의 수준이 높았다. 이들 학생들의 기본기가 탄탄해 보여 더욱 고무적이다.

〈배상철·양승돈·이형석·임봉순·현순이〉

복식 호흡 집중 연마

관악

관악기의 발성은 호흡과 직결되는데,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연주가 많았다. 특히 중등부 연주가 만족스럽지 못했고, 초등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였다. 반면 고등부는 수준 높은 경연을 보여줬고, 이번 경연을 통해 재능이 돋보이는 학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음정의 불안정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술적인 수준은 매우 높으나 음악성이 수반되지 않아 작품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초등부는 기본기에 더 충실해야 하며, 바른 연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중등부는 관악기의 가장 기본인 호흡, 특히 복식호흡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고등부는 학생의 음악적인 성향에 맞게 적극적인 자기표현이 나오면 좋겠다.

〈김정철·변성호·신상호·이창성·황성규〉

자세 바르게, 표정은 밝게

합창

합창은 자세와 표정을 밝게 해야 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긴장한 학생들이 보였다. 또 수준에 맞는 곡을 고르지 못해 애를 먹기도 했다.

교사들은 선곡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고, 외국곡의 경우 학생들이 정확한 디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노래의 주 멜로디를 정확히 살리는 게 필요하고 중창과 합창의 특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교사의 능력이다.

특히 아름다운 발성에 알맞은 음량을 유지하지 못한 게 아쉽고, 각 파트별 균형이 잘 맞지 않아 주 선율이 없어지고 화성감이 떨어졌다.

곡 선정에서는 예전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곡의 이해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성규·김철용〉

웅장한 트롬본·튜바 일품

합주

이번 합주 부문은 중추가 추가된 것이 특색이다. 몇 명이 모여서 즐기면서 호흡을 맞추며 연주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초등부는 전체적으로 활기는 있었으나 리듬감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관악기와 현악기의 조화가 단순해 더욱 세련되고 자신있게 연주해야 한다. 또 고른 밸런스가 요구되며 목관 솔로 악기들은 음정, 음색을 꼭게 연주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의 테크닉 연습이 요구된다.

중등부는 단정하고 깨끗하게 훌륭한 연주를 했다. 리듬감과 음정은 비교적 좋았고, 웅장한 트롬본과 튜바 연주는 일품이었다.

하지만 클라리넷 파트가 가끔씩 음정이 불안정했고, 저음 울림을 더욱 풍성하게 해야 한다. 꾸밈음의 음정도 보완해야 한다.

〈김연주·배상철〉

자신만의 독창적 색 내야

미술

타인과 비슷한 구도나 색채를 사용한 작품들은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아주 순수하고 맑은 색채를 구사한 작품을 대상으로 뽑았다.

초등부는 즐겁고 열정적으로 아동들만의 다양한 세계를 표현했으나 중·고등부에서는 다양성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남의 작품이나 이미지를 단순히 따라서 그리면 발전이 없다. 조금씩 자신의 색과 구도 등을 만들어 내야 좋은 작가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작품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자연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감정을 실어 형과 색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시어인 것이다. 재료의 다양한 기법, 표현 방법의 혼용 등이 과거에 비해 더욱 발전했다. 자신의 이야기, 노래를 담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

〈강남구·이정룡·정희남·조근호〉

고등부 작품 문학적성 높아

작문

같은 제목으로 글을 쓰게 하면,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번 예술제 참가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초등부 산문은 대부분 학교와 학원, 컴퓨터, 가족에 관한 것들이었다. 중등부 역시 학교 성적과 친구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입상작 선정은 주어진 제목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해 특별한 것, 진정성이 우러난 것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물론 재미도 고려했다.

심사 결과 초등부에 비해 중등부는 상대적으로 확실적인 내용이 많았다.

고등부 작품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 많았지만, 좀 더 문학적성을 확보한 작품에 우선 손을 들어주었다. 입상자에게는 박수를, 탈락자에게는 더욱더 분발하여 내년을 기약하라는 위로로 보낸다.

〈김성범·고영서·이대홍·이성자〉

출전자 더욱 많아졌으면

국악

초등학생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려운 곡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병창에서 성인 영역에서 가사를 쓴다고 해도 초등학생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인을 모방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출전자 더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성악부문의 관소리 민요 출전자 너무 적었고, 기악부문은 해금, 가야금, 피리 외에 대금, 거문고, 아쟁에 참가자가 없어 아쉬웠다.

참가자의 수준은 다소 떨어졌으나 경연자의 발표 태도와 곡목 선곡의 다양성은 발전했다.

앞으로 다양한 악기의 참가가 요구되며 특히 초등부 가야금 병창 부문에서는 학년에 맞는 곡목 선정에 유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동현, 서담〉

한국적인 호흡 갖춰야

한국무용

전체적인 작품의 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제목, 주제와 맞는 움직임 구성이 이뤄져야 하며 전통무용은 각 유래에 따라 지정된 복식을 착용하기를 권한다.

초등부 저학년의 경우엔 무리한 테크닉보다 해당 학년에 적절한 테크닉을 구사하길 바라며 음악 편집 때 음의 높낮이, 곡조의 리듬, 박자를 고려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등장과 퇴장 때 막을 건드려거나 조령라인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감정의 요인이 됐다.

앞으로는 한국무용 참가 움직임의 구사할 경우, 외국 무용의 호흡을 차용한 무리한 동작은 해당 학년의 수준을 고려해 한국무용의 호흡을 바탕으로 구성해주길 바란다.

〈김미숙·박선옥〉

기본기·테크닉 향상

현대무용

적은 인원이 참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준은 높아졌다. 작품소재와 참가자들의 기본기, 테크닉은 부족 향상되었다.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된다.

출연진 모두가 에너지가 넘쳤으며 열정적인 무대 감동을 선사했다.

중등부는 작품은 좋았으나 학생의 표현력과 테크닉이 조금 떨어졌다.

고등부에서 표현력과 테크닉이 완벽한 학생들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 모두 잘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주혜(수피어자고 2)와 박효재(풍암고 3)가 두각을 나타내 최고상으로 뽑혔다.

동작결연뿐만 아니라 주제에 맞는 의상, 감정 표현이 아주 좋았다. 입상자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많은 참여를 권하고 싶다.

〈여순심·임지형〉

고등부 팀워크·구성 훌륭

발레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경연이었다.

초등부 창작부문은 어려운 동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즐겁게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중등부 창작부문은 다른 분야보다 다소 뒤쳐졌으며 표현력도 떨어졌다.

중등부 발레부문은 움직임이 좋았고, 고등부 발레부문에서는 정확하고 품위있는 발레리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초등부 군무부문에는 어린 무용수가 많아 보기 좋았으며 고등부 군무부문은 연습량이 많아서인지 팀워크가 잘 맞아 보기 좋았다. 구성도 훌륭했다.

다만, 초등학생에 맞게 어렵고 추상적인 소재보다는 통쾌나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하면 더욱 좋겠다.

〈박경숙·박준희〉

참신한 아이디어 돋보여

만화·일러스트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대부분 경쟁력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주제는 공간적으로 상반되지만 은유로서 아우를 수 있는 '은하'와 '고래'를 제시했으며, 두 개를 조합하여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 조금 난해한 주제였지만,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보여준 재미있는 작품이 많았다.

특히 중등부 작품은 기술적으로는 설익었지만 경직되지 않고 자유분방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으로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을 즐겨워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고등부 작품은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고 안정적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제의 해석과 스토리텔링 전략이 다소 진부했다는 점이다.

〈김중두·양세혁〉

www.geums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상무점 **하남점**

1관 킹스피치 (12세)

2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별 (15세)

3관 세미의 어드벤처(더빙) (전제)

4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5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6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7~10관 리뉴얼 오픈 준비중

리뉴얼 BIG EVENT

매일매일 티몬이 강박

리뉴얼오픈기념 무료 상영회 (홈페이지 참조)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남최대주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택순 30분씩 이벤트 팝콘 증정

클롬버스시네마

1관 정무문:100대1의전설(15세)

2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12세)

3관 씨니 (15세)

4관 씨니 (15세)

5관 모비딕 (15세)

6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5세)

7관 풍산계 (18세)

8관 슈퍼에이트 (12세)

9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

10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쿵푸팬더2 (전제)

정무문:100대1의전설(15세)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

소중한 날의 꿈(전제)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최고등급**

2관 풍산계(18세)

3관 모비딕 (15세)

4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5관 씨니 (15세)

6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5세)

7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

8관 쿵푸팬더2 (전제)

9관 정무문:100대1의전설(15세)

10관 슈퍼에이트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타워, 황금주치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저가 정성요금 부과

그분이 돌아오셨다!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슈퍼에이트(12세)

2관 쿵푸팬더2 (전제)

3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

4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12세)

5관 씨니 (15세)

6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7관 정무문:100대1의전설(15세)

8관 풍산계 (18세)

색깔있는 영화한편 *www.cinus.co.kr

씨너스전대대D(4K)상영!